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250-3048~9 _ <http://www.daegu.jubo.or.kr>



† 오늘의 전례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마태 14,13-21 참조)

마태오 복음서가 전하는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한두 사람 몫으로도 넉넉할까 말까 한 양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시면 오천 명 장정이 먹고도 남습니다. 무엇이건 내 손아귀에 꼭 잡혀 있을 때는 나 한 사람에게도 부족하지만, 주님께 바쳐져 거룩하게 되면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구미 장천성당 제대
사진 _ 홍창익 비오 신부

제1독서 이사 55,1-3

제2독서 로마 8,35.37-39

복음 마태 14,13-21

입당송 하느님, 저를 구하소서. 주님, 어서 저를 도우소서. 저의 도움, 저의 구원은 주님이시니, 주님, 더디 오지 마소서.

화답송 주님, 당신 손을 펼치시어 저희를 은혜로 채워 주소서.

영성체송 주님은 하늘에서 마련하신 빵을 저희에게 주셨나이다. 그 빵은 누구에게나 맛이 있어 한없는 기쁨을 주었나이다.



나눔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의 신비

김흥수 실바노 신부 | 장성본당 주임

가끔씩 구걸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갈등이 있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해 주어야 하는데.’라는 생각과 ‘틀림없이 술, 담배나 할 텐데.’라는 생각이 교차합니다. 갈등의 요인은 가진 것의 문제가 아니라 가진 자의 마음의 자세인 것 같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행위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군중이 무리를 지어 예수님을 따라 다니고 있습니다. 먹거리를 해결해야 하는 일도 시급합니다. 제자들은 군중을 각자 돌려보내서 먹을거리를 해결하게 하자는 지극히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군중을 먹일 빵이 없는 것도 문제이지만 군중을 먹일 빵을 사야 할 돈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제자들도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의 의지가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하십니다.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라고 체념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 빵과 물고기의 주인은 어린아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의 제사를 드린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고, 제자들은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습니다.」

개인의 소유물이지만, 내 것이지만, 나를 떠나 예수님 손에 주어졌을 때 모두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찼습니다. 우

리의 마음가짐, 제자들의 마음가짐과는 달리 기꺼이 나누는 삶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을 위한 작은 마음만 있어도 세상에서 기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빵과 물고기의 소유주가 한 일이라고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냥 가진 것을 내어놓았을 뿐입니다. 가진 것을 내어 놓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그 바탕위에서 일어나는 하느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도 이런 기적의 현장에 내가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내어놓고 나누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나눔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손과 발, 내 입과 마음, 내가 가진 재능과 재물을 통해서, 내가 내어놓는 좋은 선물을 통해서만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눔은 대가가 없어야 합니다. 나누는 사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교회에 이런 예수님의 기적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느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거나 하느님께서 사랑이 부족하시기 때문에는 아닐 것입니다. 그곳에 사랑이 부족하고, 그곳에 나눔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을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성체성사는 나눔의 신비를 살아가는 사랑의 삶입니다. **김종민**

대구지역 순교자 20위의 삶을 묵상하며 ⑥

효(孝), 하늘로 오르는 사다리

박사의 안드레아(1792-1839)의 순교이야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모에게 효도해야 하는 줄 모르는 자식이 누가 있겠는가? 십계명에도 부모에게 효도하라 하지 않았던가?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첫 번째 도리가 효(孝)임을... 현실은 그렇지 못해 뉘우치며 통곡하는 일이 또 얼마나 많은가? 세상이 변해갈수록 효도하기 더 힘든 이때, 평생 부모에게 한 효행이 다른 수많은 덕행의 결실로 이어져 천국에 오른 순교자 박사의 안드레아를 만나보자.

“그 수많은 세월의 결실을 드디어 수확하게 되었으니 이 은총을 무엇으로 하느님께 감사를 드릴까요?” 1839년 5월, 12년간의 옥살이를 하던 중 사형을 집행하라는 왕명이 내려지자 기쁨에 넘쳤던 그의 말이다. 감옥생활 중에는 죄인을 만들어 생계유지를 했고 하루 한 끼 음식 외에는 다른 수감자들에게 나눠주었다. 그의 자리는 몹시 습기가 차고 낮아서 몸을 바로 펼 수 없었는데 그는 “이 자리는 내 아버지의 자리였고 또 암브로시오 스승의 자리였다. 나는 이 자리를 구세주께서 지정해 주신 자리로 여기고 있다.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있겠느냐?”고 하였다. 그는 끝까지 아버지를 섬기며 주님의 자리를 찾았다.

충청도 홍주의 양반 집안에서 박경화 바오로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어려서부터 덕이 높은 아버지에게 교리를 배우며 자랐다. 부모가 병이 났을 때는 그 곁을 떠나지 않았으며 부모가 식사를 들지 않는 한 그도 식사하지 않았다. 신앙 때문에 자주 이주함으로써 가난했지만 부모가 좋아하는 음식은 어떻게든 마련하였고, 부모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귀가시간을 넘기지 않으려 철쭉 같은 밤길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는 부모의 바람에 부응하고 미리 알려드렸다.

1827년 4월 그믐에 주님 승천 대축일을 지내던 그의 가족은 교우들과 함께 포졸들에게 체포되어 상주로 끌려가서 문초를 당한 후 대구감영으로 압송되었다. 법에 의하면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고문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었다. 하지만 잠시라도 연로한 아버지를 떠날 수 없어 그는 관장에게 청을 하였고 그의 효심에 감동한 관장은 부자가 함께 고문을 받도록 하였다. 모진 형벌로 몸을 가눌 수 없었음에도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가 썩어진 칼을 받쳐드려 좀 더 가볍게 해드리곤 하였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은 누구나 감동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순교자 박사의 안드레아님! 저희가 무엇보다 먼저 부모를 잘 받드는 자녀가 되도록 주님께 빌어주소서. **필문**



박사의 안드레아
(1792-1839)

글 대구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

그림 김효애
(크리스티나)

대구지역 순교자 20위의 삶을 묵상하며 ⑦

남을 살릴수록 깊어지는 신앙

김사건 안드레아(1794-1839)의 순교이야기



김사건 안드레아
(1794-1839)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가? 누구나 그런 유혹이 생기면 마음이 불편해진다. 차라리 내가 죽어서 남을 살려야겠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안해 온다. 하느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큰 인내의 은총을 주시는 것 같다. 순교자 김사건 안드레아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찾아들었다.

“의로운 사람은 남에게 해가 될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김사건 안드레아가 “교우들을 밀고하라”하는 상주 관아의 관장에게 한 답변이다. 그로 인해 그의 다리는 줄톱질을 당해 뼈가 허영게 드러났지만, 그의 마음은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그토록 기다렸던 순교를 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이를 참아냈다. 걷기조차 힘든 몸으로 대구 감영으로 이송되어 다시 혹독한 형벌을 당한 것도 모자라 그 몸으로 전주 감영까지 끌려갔다. 포졸들이 교우들에게 빼앗은 성물들이 그가 준 것들이라 하여 대질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다시 대구 감옥으로 되돌아오기까지 장장 천 리 길을 오가며 지독한 고문과 형벌을 견뎌냈으니 가히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으리라.

충청도 서산에서 태어난 김사건 안드레아는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교리를 배웠다. 그의 집안은 부유했으나 천주교를 받아들인 후 재산을 버리고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로 피신하여 살았다. 그러다 1815년 을해박해 때 아버지와 함께 체포되었으나 그의 마음이 약해져 석방된 적이 있다. 그때 순교하지 못하였던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참 좋은 기회를 놓쳤다.”며 교리 실천에 열중하였다. 특히 여러 지방을 다니며 교리를 가르치고 교회 서적과 성물을 배포하였으며 비신자 자녀들에게 대세를 베풀었다. 1827년 정해박해 때 체포된 후 12년간이나 옥살이를 겪는 중에도 참으로 모범적인 신앙생활로 포졸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게 되었다. 1839년 기해박해가 일어난 뒤 다시 한 번 배교를 묻는 문초에도 굴하지 않고 그 해 5월 참수형으로 순교하였으니 그때가 45세였다.

순교자 김사건 안드레아님! 아프고 힘들지만 이웃을 살림으로써 저희 안에 인내의 열매가 자라게 벌어주소서. **✠**

글 대구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

그림 김효애
(크리스티나)

이 사람을 아시나요? - 이름난 가톨릭 신자들

옥좌보다 더 귀중한 것

우리나라는 왕이나 황제를 모시지 않는 공화국이지만 아직 임금 이 있는 나라가 세상에 제법 많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처럼 입헌 군 주국인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런 나라에서도 국왕의 인기 나 왕실에 대한 존경은 대단해서, 남의 나라 사람이 자기네 왕에 대해 좋지 않게 말하거나 하면 큰일이 납니다.

서양의 군주들 중에는 천주교 신자가 매우 많습니다. 벨기에의 필립 국왕이나 스페인의 펠리페 6세와 같은 경우는 왕가 전체가 유 서 깊은 구교우 집안이고,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룩셈부르크 등의 왕실도 조상 대대로 가톨릭 신앙을 지켜 온 집안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가문과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천주교 신자가 된 이들도 있습니다. 영국의 국왕은 영국 국교회(성공회)의 수장을 겸하므로 반드시 성공회 신자라 야 하고, 왕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켄트 공작부인 캐서린-에드워드 황태자의 부인-은 스스로 개종했을 뿐 아니라 딸과 손자 손녀들도 모두 천주교 신자로 키웠습니다. 왕실에서 그녀 의 개종을 말리려 했을 때 그녀는 아예 공영방송에 인터뷰를 요청해서 자신의 신념을 공공연히 알렸습니다. 황손이자 영국 제6왕위인 니콜라스 원저는 천주교로 개종하면 왕위 계승권을 박탈 하겠다고 하자 선뜻 제6왕위를 포기해 버렸습니 다. 원저 공은 주일을 빠짐없이 지키는 열심한 신 자이며, 낙태 근절과 자선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필립**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



원저 공



켄트 공작부인

금주의 성인

8월 3일	성 가블리엘(율법학자, 1세기경), 성 니고데모(신약인물, 예수의 제자, 순교자, 1세기경) 성녀 리디아(의류상인, 바오로의 제자, 1세기경), 성 아비보니스(바오로의 제자, 1세기)
8월 4일	성 몰루아(수도원장, 608년), 성 요한 마리아 비안네(신부, 아르스, 1786~1859년) 성녀 이아(순교자, 360년경)
8월 5일	성녀 논나(부인, 평신도 나지안주스, 374년), 성녀 아프라(순교자 아우크스부르크, 304년경) 성 오스왈도(왕, 순교자, 노섬브리아, 604~642년)
8월 6일	성 야고보(은수자, 500년경), 성 호르미스다(교황, 523년)
8월 7일	성 도나토(주교, 순교자, 아레초, 361년), 성 도메시오(수도승, 순교자, 362년) 성 빅트리치오(군인, 주교, 증거자, 루앙, 330~407년), 성 식스토 2세(교황, 순교자, 258년) 성 알베르토(신부, 은수자, 트라파니, 1307년), 성녀 클라우디아(공주, 1세기경) 성 카예타노(신부, 설립자, 티에나, 1480~1547년)
8월 8일	성 도미니코(신부, 설립자, 설교자, 1170~1221년), 성 알트만(주교, 파사우, 1020~1091년) 성 치리아코(부제, 순교자, 로마, 303년)
8월 9일	성 로마노(군인, 순교자, 로마, 258년)

■ 장천성당 성전 봉헌식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7월 27일(일) 오후 3시 구미 장천성당에서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셨다.

■ 제11회 청소년 문학캠프



대구가톨릭청소년회와 대구가톨릭문인회가 공동주관하고 가톨릭신문사와 대구가톨릭대학교가 후원하는 제11회 청소년 문학캠프가 7월 25일(금)부터 27일(일)까지 대구가톨릭대학교 세실리아관에서 중고등학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어쩐지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8월 4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8월 4일(월) 19:30 꾸르실로 교육관 대성당
밀알빛 및 시각장애인 선교회 월례미사	8월 4일(월) 11:00 계산성당	해외선교후원회 월례미사	8월 9일(토) 11:00 성모당
포항지역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8월 4일(월) 11:00 죽도성당		

성소 | 피정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소 캠프

기간: 8.6(수)~7(목) / 인원: 15명

주제: 아하, 프란치스코, 우후!

문의: (010)2324-3217

2014 살레시오 여름 성소 캠프

기간: 8.13(수)~16(토)

장소: 살레시오 내리 피정의 집(태안)

대상: 중1~고2 남학생

참가비: 5만 원

문의: (010)3894-1332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한 ME주말

323차: 8.15(금)~17(일), 한티피정의집

문의: 대구ME, 983-0521

배우자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베네딕도 영성관 신약성경 통독 피정

기간: 8.18(월) 9:45~21(목) 17:00

동반: 김수조(아가다) 수녀

회비: 각 14만 원, 문의: 313-3425

힐데가르트 영성 피정에 초대합니다

기간: 9.13(토)~14(일)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9명)

기간: 8.19(화)~20(수) / 매월 셋째 주

내용: 정기모 신부와 함께하는
주고 받은 상처의 치유 시간

문의: 동천성당, 326-5004

삼성산 8월 2박 3일 대피정(서울대교구)

기간: 8.8(금)~10(일) 15:00

문의: (010)4938-7076 / (02)874-6346

남성 제249차 꾸르실로 일정 변경

변경 전: 8.14(목)~17(일)

변경 후: 8.21(목)~24(일)

문의: 254-4671

예수성심으로의 초대

기간: 8.30~31 / 9.27~28

장소: 예수성심시녀회(대구)

대상: 길을 찾는 미혼 여성

신청: 예수성심시녀회, (010)2649-2045

렉시오 디비나 피정

기간: 9.27(토) 14:00~28(일) 16:00

장소: 베네딕도 영성관

피정비: 5만 원, 신청: 8.31(일)까지

신청: <http://cafe.daum.net/biap>

문의: 250-3082 / (010)3245-3082

지속적인성체조배회 성체신심세미나

기간: 8.8(금)~10(일)

내용: 현시, 조배, 강의, 참회,
면담성사, 안수

강사신부: 하성호, 송재준, 변재홍,
베네딕도수사, 정기모, 스
승예수제자수녀

문의: (010)5493-1819

교육 | 모집

예수마음배움터 기도 영성수련

2박3일: 8.22(금) 17:30~24(일)

4박5일: 8.25(월) 14:00~29(금)

8박9일: 8.11(월) 14:00~19(화)

이나시오: 8.11(월) 14:00~19(화)

문의: (031)946-2337~8

김갈수(사도요한) 교수와 함께 하는 성지순례

일본성지순례: 4박 5일 / 히라도,

나가사키, 운젠 / 순교자들의 발자취

중국성지순례: 3박 4일 / 소주, 상해

주문모, 김대건, 최양업 신부님의 발자취

문의: 성모승천수도회, (02)778-5100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효도, 단체관광 및 성지안내
차량, 호텔, 팬션 예약 가능

문의: 제주기사사도회,

(010)4566-6476

일본 성지 순례

히라도, 나가사키 / 오이타, 유우인(4일)

※ 출발일 - 09월 24일(마관)

- 10월 22일, 29일

- 11월 12일, 26일

- 12월 03일, 17일

T. (053)253-3399

www.sungjitour.com

(주)성지여행 조엘레(유스티노)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의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유방·갑상선 전문 여의사

Maria Breast Clinic
마리아유외과

대표원장 김 정 경(안젤라)

반월당역 22번 출구 농협 3층

(주차 가능합니다)

예약전화 053)252-6875

박의현 구심내과 의원

서정희 피부과
Dermatologist Dr. Suh

피부질환, 레이저, 스킨케어, 보톡스
심장병,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초음파

지하철2호선 경대병원역 3번출구

☎ 256-6700 서정희(카타리나)

☎ 252-1785 박의현(안드레아)

ME 6차 부부의 달성피부과

의학박사 / 피부과전문의
손재경(다미아노) 김인주(레지나)

아토피센터·여드름·흉터·주름·탈모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 566-4333

미소나라 미소나라

예식부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부페

대표 양 애 향(마리아)

사회적기업 (주)서구엘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라.kr>

두산약국

경대병원 처방조제전문
경대병원 응급실건너편

T. 422-4423

김계남(크리스티나)

www.appleuro.com 에플비뇨기과

비뇨기과 원장 강 일(베드로)
전문의 이영국(안드레아)

전립선 클리닉(레이저수술, 암검진)

요로결석클리닉(24시간 채석)

범어네거리 애플타워 5층 TEL. 755-0888

행사 | 모임

자산성당 은혜의 밤

일시: 8.4(월) 19:00

장사: 방부역(요한) 성요한수도회 신부

문의: (010)3378-0389

교육 | 모집

대구소공동체체일 개최 및 수기공모

소공동체체일: 10.11(토) 10:00

장소: 교육원 다동 대강당

회비: 각 5천 원, 마감: 9.23(화)까지

수기공모: 소공동체에 활동 체험수기

공모기간: 9.12(금)까지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6

시니어평생대학 봉사자 연수

기간: 8.11~9.1(매주 월) 9:00~15:00(총4회)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신청비: 3만 원(중식제공)

신청마감: 8.1(금)까지

문의: 노인사목, 250-3076

FAX 250-3078

초등학생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주말반)

기간: 8.9(토)~10(일) 9:00~13:00

장소: 계산문화관 1층 강당

내용: 재미있게 계획하고 실천하는 봉사

(교재비 5천 원 / 자원봉사활동 8시간 인증)

신청: 2대리구 사회복지회, 744-5671

2014 여름방학 편편볼런티어 모집

기간: 8.13(수)~14(목) 13:00~17:00

장소: 1대리구청강당(계산문화관 내)

내용: 초등학생 자원봉사활동프로그램
(자원봉사활동인증 8시간)

신청: 1대리구청, 426-7212

대구 가톨릭 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기간: 연중 상시, 매주 토 19:00

장소: 계산문화관 5층

자격: 음악을 사랑하는 가톨릭신자

참고: 성악전공 관계없음(오디션 필수)

문의: 송재용, (010)3352-8748

16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2차: 8.24(일) 8, 12주

3차: 9.20(토) 8,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가

해외봉사 인증서(학점인정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사회교육 프로그램 강좌 개설

개강: 9월 셋째주

내용: 황종렬 박사의 5차원 영성수련

장경화 선생님의 부모-자녀 프로그램

스페인어 초급반-매주 수(오전반 / 저녁반)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목마른 사람은 모두 대구성령봉사회로

철야기도회: 매주(금)22:00~(토)4:00

성령세미나(2박 3일): 홀수달 둘째주(금~일)

1일 대피정: 매달 셋째주(토)13:00~18:00

1박 2일 피정: 매달 넷째주(토)13:00~(일)16:00

문의: (054)954-0951

채용 | 안내

교구청 사제관 영양실 및 조리원 직원 채용

자격: 45세~60세(여)

문의: (010)9206-3224

사회복지법인안심원 성가요양원

요양보호사 채용

자격: 요양보호사자격증 소지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자격증사본, 기타

주소: 경북 칠곡군 동명면 한티로 140

문의: (054)976-8236, 8122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탯줄혈액) 기증

문의: 959-8883 / 940-7126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국내입양전문) 입양·미혼모 상담

문의: (02)764-4741~3

<http://www.holyfcac.or.kr>

교구 신자 상호별 전화번호부 발행

대상: 교구 내 신자 사업자

줄광고(무료) 및 유료광고 신청

문의: 본당 사무실 또는 월간<빛> 총무부

250-3158 / 252-5392

길 안 건 축

리모델링 전문업
옥상방수, 칠

☎ 053)556-6257 김기석
010-6608-6257 (다니엘)

대구연세안과

· 아이라식 · 안내렌즈
· 노안수술 · 백내장

지하철 1호선 영대병원역 2번 출구

의 학 박 사 원, 연세대외래교수 원장 박종원(소시모)

☎ 053)626-8881~5

목조 전원주택 분양/시공



21C
HOUSING

21C 주택산업
이정수 마티아
경산조폐공사정문 앞

(053)817-0322 | 010-2624-0322

Rex Diamond

Legend of Royal

대구갤러리

예물, 천연보석, 다이아몬드, 순금바
(목주반지 · 핸드메이드 디자인 가능)

대표 임 미 순(마리아)

동아백화점 본점에서 시청방향 사이
(맞은편 통일주차장 무료)

☎ 053)428-7989 | 010-4439-9991

교우님들께는 특별한 혜택을 드립니다.

All That Music

(을멋뮤직앙상블)
웨딩연주 및 행사연주 기획연주전문
(관악, 현악 중주, 오케스트라
구성 자체 편곡 연주)

대표 이 상 준(사무엘)

010-2778-7004

백두정형외과

정형외과 전문의 배상근 베드로
신생아 세부전문의 배상영 미카엘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053-425-5919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KCB 포장이사서비스

꼼꼼히 딱 하루 한집만!!

홈케어 무료서비스

무료전화 080-053-1000

아곡수(아네스) 010-5048-7739

한영한마음이동병원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병원 ~
병원장/의학박사 손천락(리피엘)

365일연중무휴진료

*평 일 : 오전 9시~밤 12시 까지
*토·일·공휴일 : 오전 9시~밤 9시 까지

☎ 260-7777 (내선) 260-7575
서부정류장 관문시정영(구달성군청자리)